

정비석 대중문학의 또 다른 지평으로서 역사문학

- 장르별 계보와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

김병길*

1. 서론
2. 역사문학의 갈래와 텍스트 서지
3. 재미와 교훈의 길항
4. 텍스트 간 교섭과 담화적 분절
5. 결론

국문요약

정비석 문학의 본령의 하나라 할 역사문학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의 역사문학 텍스트들의 서지사향과 판본 간 주요 특질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을 연구의 제일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그의 역사문학 글쓰기의 동인이 무엇이었든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다. 정비석 역사문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소설은 ‘재미’와 ‘교훈’ 사이의 길항이라는 근대 한국 역사소설 문학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처럼 정비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근대 한국 역사소설 문학의 전통을 추수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소설 미학을 정립해갔다. 특히 발로 쓴 역사소설이라 할 만큼 그의 역사소설 창작은 답사기로서의 성실성을 보여준다. 정비석 역사소설 창작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특징을 변별해냄으로써 개별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주제어 : 역사소설, 대중성, 재미, 교훈)

1. 서론

그 명성에 비한다면 정비석 문학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역설적이게도 대중적으로 가장 환영 받은 작가의 한 사람이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는 그의 문학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선행연구사를 검토하다 보면 생전에 작가 정비석이 누린 대중적 인기가 결국 그의 사후 연구자들의 접근을 막은 저주의 주술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특히 조금 과장하자면 양적인 면에서 정비석 문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역사문학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글이 그의 역사문학 텍스트들의 서지사향과 판본 간 주요 특질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을 연구의 목적이자 방법론으로 삼는, 아니 삼을 수밖에 없고 삼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역사문학이라는 용어로 잠정 통칭할 수 있는 여러 텍스트들을 갈래 짓고 그 정확한 서지사향을 밝히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정지 작업이 이루어지고난 후에야 비로소 정비석 역사문학 글쓰기의 동인이 무엇이었던가를 묻을 수 있었다. 결론은 ‘재미’와 ‘교훈’ 사이의 길항이라는 근대 한국 역사소설 문학의 전통에서 정비석의 역사문학 역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작자의 증언과 고백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정비석은 근대 한국 역사소설 문학의 전통을 추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소설 미학을 정립해갔다. 발로 쓴 역사소설이라 할 만큼 그의 글쓰기는 답사기로서의 성실성 또한 보여준다. 정비석 역사문학만이 갖는 이와 같은 개성적인 색채를 간추려보는 작업이 이 글의 주요한 또 하나의 과제이다.

2. 역사문학의 갈래와 텍스트 서지

정비석의 역사문학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정비석 역사문학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역사소설 창작으로 『暴君 燕山君』(『이리랑』, 1955-56)¹⁾

이 그 최초작이다. 문단 데뷔 후 근 20년이 지난 시점에 역사소설계에 입문한 정비석이 역사소설 창작에 주력한 것은 1974년 『조선일보』에 『名妓列傳』(1974. 4. 2~1979. 2. 28.)을 연재하면서부터다. 이후 전작장편 『閔妃』(범우사, 1980)에 이어 『金삿갓 風流紀行』(1985. 11. 20~1989. 7. 23.)을 『한국경제신문』에 연재하면서 그는 본격적인 역사소설가로서 입지를 다져갔다. 『暴君 燕山君』은 연재가 종료된 직후 단행본 『歷史小說 燕山君』(정음사, 1956)로 발간되었다. 이에는 장편 ‘燕山君’ 외에도 세 편의 ‘李朝史譚’이 함께 수록되었다. 말하자면 정비석은 역사소설 창작과 사담, 즉 역사담물 쓰기를 병행함으로써 역사문학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이 작품은 이후 ‘暴君 燕山の 行狀記’라는 제목으로 『韓國野談史譚全集』(東國文化社, 1960)²⁾ 제 13권에 수록된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小說 燕山君』(고려원, 1984)으로 재발간된다. 당시는 『孫子兵法』과 『楚漢誌』 등의 연이은 연재로 역사소설가로서 정비석의 명망이 높을 때였다. 30여년이 지난 작품이 다시 발간된 사정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다. 이때 초판에 함께 실렸던 사담들은 빠지고 오롯이 ‘燕山君’만 수록되었다.

대중적 인기도나 연재 기간 면에서 정비석의 역사소설 가운데 단연 수위를 차지하는 작품이 『名妓列傳』이다. 당시 이 작품이 누린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이미 연재 중에 기간의 연재분이 전집 형태로 발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만 5년여에 걸쳐 총31화 1507회가 연재된 이 작품은 1977년 二友出版社에서 前期 7권이 발간되었다. 연재 마지막 회인 1979년 2월 28일자 연재분에는 전기 7권에 이어 후기 3권이 삼월하순에 완간될 예정임을 알리는 광고가 함께 실렸다. 그러나 후기 3권은 二友出版社에서 출간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이태 뒤인 1981년 信正社에서 전10권의 단행본 전집으로 출간됐다. 출판사만 달라졌을 뿐 두 전집의 판본은 동

-
- 1) 이 작품은 잡지 『아리랑』의 창간호인 1955년 3월호에 첫 회가 연재되어 이듬해인 1956년에 연재가 종료되었다. 『아리랑』의 일부 호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연재 종료 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나, 1956년 3월호에서 동년 8월호 사이에 종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재분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정음사 판 단행본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이 전집의 판본은 『韓國代表野談全集』(書正出版社, 1971)으로 개제되어 재발간된다. 그 과정에서 전집의 일련번호가 바뀌는데, 정비석의 작품들은 제10권으로 출간되었다.

일하다. 그런데 단행본 전질은 신문연재본과 일화들의 순서가 달랐다. 그렇다고 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분량으로 전10권을 편집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일화들을 재배치했던 것이다. 내용상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 이후 이 작품은 30여 명의 가장 뛰어난 기생들을 각 도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전6권의 『鄭飛石名妓列傳 美人別曲』(고려원, 1989)으로 재발간되는가 하면, 『옛날 옛날에 한 女子-옷을 벗은 黃眞伊』(南郷文化社, 1982), 『황진이-정비석의 역사인물소설 1』(열매출판사, 2006)과 같이 특정 인물의 일화만을 뽑아 놓은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名妓列傳』의 연재가 거둔 대중적 성공에 힘입어 한 해 뒤 역사소설 『閔妃』가 출간된다.³⁾ 이 작품은 데뷔 이래 여성문제 탐구에 매달려온 정비석 문학의 일 전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와 같은 주제의식을 역사소설 창작으로 시현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역사적인 여성인물에 대한 문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보자면 선행하는 『名妓列傳』과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외세의 침범과 간섭, 국제정세에 어두워 빛어진 실정(失政)과 종교탄압, 민생과 민의를 외면한 권력투쟁, 정권유지를 위한 정보정치, 정권쟁취를 위한 음모와 배신(背信), 이신벌군(以臣伐君)의 비극과 민중의 봉기, 반사회적인 도덕과 타락한 윤리, 여자의 질투가 빛은 갖가지 처절한 비극”⁴⁾ 등 해당 인물이 살았던 시대 전반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갖는다. 이 작품 역시 몇 차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출간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다.⁵⁾ 이 과정에서 부분적이 수정이 이루어졌거니와, 그 과정에서 특히 장 제목의 변경이 눈에 띈다. 『小說 閔妃傳』(고려원, 1987)을 새롭게 조판 및 개제하여 『소설 명성황후』(고려원, 1995)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감고당(感古堂)의 서기(瑞氣)」가 「여결의 탄생」으로, 「시위소찬(尸位素餐)의 군신(群臣)」이 「무능한

3) 『閔妃』 역시 정비석의 창작 관행과 텍스트 내적인 특징들을 고려해볼 때, 이미 신문 혹은 잡지에 연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최초 지면을 아직 찾지 못한 탓에 본고에서는 범우사 판 단행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4) 정비석, 「이 책을 읽는 분에게」, 『閔妃』, 범우사, 1980.

5) 『小說 閔妃傳』(고려원, 1987), 『소설 명성황후』(고려원, 1995), 『소설 명성황후』(범우사, 2001) 등으로 출간되었다.

군신들」로, 공궤(空閨)의 원한(怨恨)이 「고독한 중전」 등으로 장명이 일부 바뀌었다. 독자층을 의식한 이러한 수정은 작가의 자발적 개입이라기보다는 출판사측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孫子兵法』과 『楚漢誌』에 이어 『한국경제신문』에 근 3년여 간 연재된 정비석의 마지막 역사소설이 『金삿갓 風流紀行』이다. 한 신문에 3개의 작품을 연속해서 연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 이 작품은 “奇人の諧謔·諷刺 역사현장 踏査 執筆”⁶⁾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되어 총 21장 1131회 분이 연재되었다. 이후 1988~1989년 고려원에서 『鄭飛石風流小說 小說 김삿갓』이란 이름으로 제1권 ‘山中問答’, 제2권 ‘別有天地’, 제3권 ‘關北千里’, 제4권 ‘歸去來辭’, 제5권 ‘山高水長’, 제6권 ‘錦繡江山’의 단행본 전질이 출간된다. 이때 각각의 권 명은 연재본 장 제목의 일부를 가져다 썼다. 또한 단행본은 연재본의 장 제목에 새로운 제목들을 추가하여 세분화된 장들로 편집되었다. 그러나 본문만은 최초 신문연재 판본 그대로였다.

두 번째 갈래는 사담(史譚), 사화(史話), 그리고 전(傳) 등을 아우른 이른바 역사담물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시기상 『飛石文學讀本』(글벗집, 1955)에 수록된 사담 「명기(名妓) 일지매(一枝梅)」와 「흑두재상(黑頭宰相) 홍언필(洪彦弼)」이 가장 앞선다. 같은 해 정비석은 『野談』지에 사담 『李朝奇人列傳』을 연재하고 있었다. 『暴君 燕山君』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歷史小說 燕山君』(정음사, 1956)에도 「李朝史譚」, 즉 「김판서(金判書)와 단천관이(端川官娥)」, 「효종대왕(孝宗大王)과 박탁(朴鐸)」, 「변도령(邊道令)과 옥소선(玉簫仙)」이라는 세 편의 사담이 등장한다. 한편 『韓國野談史譚全集』(東國文化社, 1960)에는 『暴君 燕山君』을 개제한 「暴君 燕山の 行狀記」 외에 「風流奇譚」, 「世宗大王」, 「黃喜政丞」, 「活貧黨」 등 다양한 역사담물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건대, 정비석의 역사담물 쓰기는 역사소설 창작 훨씬 이전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작품 수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정비석은 사화집 『李朝女人史話』(正音社, 1976)를 내놓는다. 이에 수록된 총 14편의 텍스트 출처는 모두 야사(野史)이고, 그 주요 내용은 옛날

6) 내일부터 鄭飛石씨 제3彈 小說 연재, 『한국경제신문』, 1985.11.19.

여인들의 애정 기록이었다.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텍스트라기보다는 역사적 소재를 인물 중심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한 역사담물이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10여년 후 정비석은 『賢婦列傳』(正音社, 1985)이라는 사회집을 같은 출판사에서 발간한다. 총 15편으로 구성된 이 사회집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상 뛰어난 부인들과 어머니들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李朝女人史話』가 흥미로운 이면사(裏面史) 중심의 이야기인데 반해, 『賢婦列傳』은 인물의 행적에 더욱 주목한 텍스트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텍스트 모두 역사 속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석 문학의 일반적 특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역사적 인물 중심의 사담 쓰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정비석은 그 외연을 퇴계 이황에게로까지 넓혔다. 『退溪逸話選』(1976. 12~1979. 6)과 『退溪小傳』(退溪學研究院, 1978)이 그것이다. 전자는 『退溪學報』에 10회에 걸쳐 26화가 연재된 후 총 30개의 일화로 구성된 사회집 『退溪逸話選』(退溪學研究院, 1980)으로 출간되었다. 이때 네 개의 일화가 추가되었고⁷⁾, 그 배치 순서와 일부 제목이 바뀌었다. 그러나 내용은 그대로였다. 한편 후자는 퇴계라는 인물의 행적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그의 학문 세계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 일종의 전기다. 『退溪小傳』 역시 일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退溪逸話選』에 비할 때 공적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 『退溪逸話選』이 독자의 흥미를 상대적으로 더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退溪逸話選』의 第三十話 「丹陽妓 杜香의 雅香」의 일화가 『退溪小傳』에 빠져 있다.⁸⁾

정비석 역사문학의 세 번째는 갈래는 기존 중국 역사물을 소설화 한 작품 군이다. 1980년대 한국 출판계에 유례없는 역사소설 선풍을 몰고 온 주역으로서 『자유부인』 이후 다시 한 번 그는 대중적 문명을 떨친다. 『小說 孫子兵法』(『한국경제신문』, 1981. 6. 2~1983. 2. 17.)과 『楚漢誌』(『한국경제신문』, 1983. 2. 18~1985. 11. 19.)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비석은 이전에 이미 한

7) 退溪의 讀書法, 退溪와 방야打令, 「紹修書院」, 丹陽妓 杜香의 雅香, 라는 제목의 일화가 추가되었다.

8) 『退溪學報』의 연재분에도 이 일화는 빠져 있다.

차례 중국 역사물을 소설화 한 경력이 있었다. 바로 『少年三國志』(『學園』, 1963. 1~1967. 10.)다. 이 작품은 중국 고전소설의 원작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吉川英治가 번안한 일본어판 『三國志』를 기반으로 이에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다.⁹⁾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이 겨냥한 주 독자층은 학생이었다. 실제로 학생 대상의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그런 만큼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읽히도록 쓰였다. 그 인기를 말해주는 것이 작품은 연재 종료와 함께 바로 전5권의 단행본 출간을 보게 된다. 그 제명은 ‘少年’을 떼어낸 『三國志』(學園獎學會, 1968)였다. 기대독자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이후 凱旋門出版社(1976), 일연각(1977), 大賢文化史(1978), 고려문화사(1978), 고려원(1985) 등 여러 출판사에서 연이어 출간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小說 孫子兵法』 연재의 전사(前史)가 된다.

『少年三國志』의 계보를 잇는 『小說 孫子兵法』을 정비석은 10여 년간에 걸쳐 20여권의 관련 연구서적을 독과한 후 ‘孫子兵法 精神’이라는 주제 아래 총 530회에 걸쳐 『한국경제신문』에 연재했다. 그는 ‘孫子兵法の 精神’에 초점을 맞춘 이 소설이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학의 보감이자 기업 운영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¹⁰⁾ 그 같은 예상에 부응하듯 신문 연재 당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小說 孫子兵法』은 『名妓列傳』의 연재 종료 직후 같은 지면에 연재되었다는 점에서 후자의 대중적 성공에 한편으로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연재 종료 다음 해에 전4권의 『小說 孫子兵法』(고려원, 1984)으로 발간되어 3백만 부 판매라는 베스트셀러 신화를 기록했다. 이 전질의 제1~3권은 신문연재분과 내용 및 체제, 그리고 장 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제4권 ‘兵法解說’은 신문연재분에 없던 내용으로 정비석이 쓴 머리말, 그리고 손무와 손빈의 『孫子兵法』에 관한 한무희의 해설을 한데 묶은 일종의 해설서였다. 2000년대 들어 이와 동일한 판본의 『소설 손자병법』(은행나무, 2002)이 출간된 바 있다.

『小說 孫子兵法』의 연재 종료에 즈음하여 광고되기 시작한 『楚漢誌』는

9) 홍상훈, 梁建植의 『三國演義』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1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71쪽.
10) 정비석, 「小說人生」마감…執筆혼신8년, 『한국경제신문』, 1989.7.25.

작자 정비석의 술회에 따르면, 중국 역사 전체를 3부작으로 소설화하기 위해 『三國志』, 『孫子兵法』과 함께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작품이다.¹¹⁾ 말하자면 앞서의 두 작품의 후속작인 셈이다. 총 9부 850회에 걸쳐 연재된 이래 『楚漢誌』는 연재 기간 중 일부가 『小說 楚漢誌』(고려원, 1984~1985)로 출간되고 연재 종료와 함께 전5권이 완간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단행본은 9부로 나뉘어 신문본의 일부 부제를 권 명으로 가져다 쓴 점을 제외하고 원문 그대로 출간되었다. 연재 당시 동시 발간된 이 텍스트를 저본으로 한 단행본 전질이 2000년대 들어 출간되었거니와, 『小說 초한지』(범우사, 2003)가 그것이다.

3. 재미와 교훈의 길항

정비석의 역사소설 창작 동기는 표면상 과거에 대한 성찰로부터 현재에 유용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첫 번째 역사소설 『暴君 燕山君』에 대해 정비석은 후일 “역사는 언제나 공정한 최선의 충고자인 동시에, 냉철한 최후의 심판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나는 연산군(燕山君)의 어지러웠던 행적을 일일이 파헤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금후에는 그와 같이 불행한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게 하려고 이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¹²⁾ 라고 회상한다. 역시 단행본 전작소설로 발표한 『閔妃』의 머리말에서도 “우리는 이 자취를 더듬어보면서, 조선왕조가 패망한 원인을 추적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독자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이 작품을 썼다.”¹³⁾는 식의 유사한 논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정비석은 자신의 역사소설 창작을 일종의 역사 기술의 대체적 글쓰기로 규정한다. 신문에 연재한 역사소설 창작에서도 이 같은 의식이 견지되나, 문제는 그것이 신문사의 기대지평과 달랐다는 것이다. 『名妓列傳』의

11) 정비석, 作家後記, 『小說 김삿갓-제6권 錦繡江山』, 고려원, 1989.

12) 정비석, 작가의 말, 『소설 연산군』, 고려원, 1996.

13) 정비석, 이 책을 읽는 분에게, 『閔妃』, 범우사, 1980.

연재에 앞서 1974년 3월 31일자 『조선일보』는 “새連載小説 名妓列傳 「잊혀가는 諧謔諷刺情趣… “朝鮮王朝의 風流””라는 제하로 이 작품을 광고하면서 “잊혀가거나 왜곡되어 있는 妓生을통해 옛 王朝의 社會史와 政治史를 흥미있게 그려주”길 기대한다. 이에 대해 정비석은 “나날이 소멸되어가는 과거 名妓들의 진면목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적인 풍류의 일면을 더듬어 볼까 한다.”라는 창작 지향을 내놓았다. 연재를 기획한 신문사가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작자는 역사적 사실의 발굴내지는 기록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실제로 작자의 이러한 의식은 “내가 명기열전을 쓰고있는 의도는, 서럽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어간 「명기」라는 이름의 뛰어났던 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세상에 널리 알려 보자는데 있다.”¹⁴⁾라든지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천대를 받아오면서도 그설사로운 환경속에서도 「妓女道」를 알뜰히 지켜온 그정신이 아름다왔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이미 없어진 오랜 전통을 소설로나마 후세에까지 남겨보고 싶기 때문이었다.”¹⁵⁾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의 서술을 통해 연재 중간 중간 피력되곤 했다.

『名妓列傳』에 이은 『金삿갓 風流紀行』에서는 매체와 작가 사이의 위와 같은 기대 편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재를 요청한 편집자는 “19세기 朝鮮朝계급사회에서 詩를 통한 해학과 풍자로 서민정신을 대변한 奇人 金삿갓(金炳淵)의 행적을 좇아 역사의 현장을 살살이 답사해 가면서 그려나갈 「金삿갓 風流紀行」은 각박한 현대생활에 활력과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해 주는 한편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줄 것”¹⁶⁾이라 예상한다. 작자의 출사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집을 뛰쳐나와 삿갓을 쓰고 流離의 客으로 終身했는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설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밝혀 나가면서, 그가 방랑생활을 하는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겪었던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되도록 흥미롭게 풍류적으로 엮어나가볼 생각”¹⁷⁾임을 정비석은 예고했던 것이다. 신문사

14) 정비석, 『名妓列傳』, 『조선일보』, 1977.10.7.

15) 정비석, 「殉愛의 孤魂」 찾아 6년 「名妓列傳」을 끝내고, 『조선일보』, 1979.3.1.

16) 「내일부터 鄭飛石씨 제3彈 小説 연재」, 『한국경제신문』, 1985.11.19.

17) 정비석, 「作家的 말」, 『한국경제신문』, 1985.11.19.

가 기인으로서 김삿갓의 흥미로운 행적에 주목하여 독서의 효용성을 선전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면, 작자 정비석의 경우 대상인물의 행적에 대한 사실적인 탐색을 좀 더 강조했다라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정비석에게 역사소설 창작은 이처럼 단순히 오락적 읽을거리에 그치는 글쓰기가 아니었다. 흥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 말하자면 역사적 교훈을 주는 글쓰기여야 한다는 의식이 거기엔 내재해 있었다. 『金삿갓 風流紀行』 연재를 마친 직후 정비석이 “나는 이 작품을 쓰게 된 데 대해 作家로서의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¹⁸⁾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이 같은 집필 동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역사담물 쓰기에 있어서 정비석은 역사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훈적 측면을 중시했다. 그는 사화집 『李朝女人史話』(正音社, 1976)의 머리말에서 해당 저서에 수록되어 있는 14편의 옛 이야기가 모두 야사(野史)에 나오는 이조(李朝) 여인들의 사화(史話)로서 그네들의 애정 기록을 통해 내면생활의 일단을 소개할 것임을 밝힌다. 십여 년 후에 발간한 사화집 『賢婦列傳』(正音社, 1985)의 집필 동기 역시 이와 유사하거니와,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뛰어난 부인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소개¹⁹⁾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전(傳) 양식으로 기술된 『退溪小傳』(退溪學研究院, 1978)의 경우도 역사적 인물의 행적이 후대에 환기시키는 의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역사담물들과 목적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퇴계의 수많은 일화를 중심으로 그의 인간성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그의 학문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소개하는 데 바로 저술의 지향점을 둔 것이다. 그 동기는 퇴계의 인물과 학문은 누구나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너무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유감스러워서였다.²⁰⁾ 비슷한 내용을 일화 중심으로 풀어 쓴 『退溪逸話選』(退溪學研究院, 1980)은 『退溪小傳』 집필 직후 『退溪學報』에 연재한 글들을 묶은 것으로 소설적 담화 형식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준다.

18) 정비석, 「小說人生」마감…執筆혼신8년, 『한국경제신문』, 1989.7.25.

19) 정비석, 『賢婦列傳』, 正音社, 1985, 6쪽.

20) 정비석, 『退溪小傳』, 退溪學研究院, 1978, 5쪽.

“한국 유학계(韓國 儒學界)의 최고봉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사상과 인품을 쉽게 알아보는 데는 그가 七十평생에 남겨 놓은 허다한 일화를 더듬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²¹⁾에서 대중적 전언력을 높이고자 소설의 형식을 빈 것이다.

한편 역사소설, 사화 및 전 같은 역사담물과 비교할 때, 중국 고전 역사물을 소설화한 일련의 텍스트들에 이르러서는 처세적 교훈과 통속적 재미의 측면이 노골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小説 孫子兵法』은 東洋의 古典 『孫子兵法』의 지략을 통해 기업경영의 이치와 처세의 원리를 제시해줌으로써 독자여러분을 심취케 할 것입니다.”²²⁾라는 광고를 통해 피력된 신문사의 연재 기획 의도에 작자 역시 적극 부응했음이 후일 정비석의 다음과 같은 회고에서 확인된다.

나는 《孫子兵法》이라는 이 소설 속에서, 그 당시에 할거(割據)했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총동원시켜가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무궁 무진한 권모술수와 파란 만장했던 수많은 전쟁들을 다채롭게 엮어 나가느라고 노력해 보았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가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것처럼 다행한 일은 없겠다.²³⁾

『小説 孫子兵法』이 거둔 흥행에 고무된 신문사 측의 요청에 의해 바로 뒤이어 연재된 『楚漢誌』는 재미의 요소가 훨씬 강조된 텍스트이다. 심지어 작자 정비석이 직접 나서 “力拔山 氣蓋世의 魁帥 項羽와 仁厚寬容의 德將 劉邦과의 乾坤一擲의 楚漢쟁패전은 5천년 中國역사중에서도 풍운과 파란이 가장 중첩했던 인생활극의 극치였”다는 시대 배경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 소설에는 개성이 강렬한 지사와 열사들도 무수히 등장하여 作中の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전개시켜 주기도 합니다.”²⁴⁾라는 해설까지 덧붙임으로써 독자 대중의 관심을 격양된 목소리로 한껏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

정비석의 역사문학 집필 의도는 이렇듯 외경상 다양했다. 그것은 일차적

21) 정비석, 退溪逸話選(一), 『退溪學報』, 退溪學研究院, 1976.12, 52쪽.

22) 새連載 小説 孫子兵法, 『한국경제신문』, 1981.5.29.

23) 정비석, 작가의 말, 『小説 孫子兵法(1)』, 고려원, 1984.

24) 정비석, 作家의 말, 『한국경제신문』, 1983.2.16.

으로 해당 글쓰기의 갈래, 즉 소설인가 역사담물인가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단행본이었던가 연재물이었던가에 따른 차이 역시 컸다. 무엇보다도 발표 지면의 성격, 즉 매체의 규정성이 그 같은 차이를 낳은 지배적인 요인이었다. 『小説 孫子兵法』에서 시작하여 『楚漢誌』, 『金삿갓 風流紀行』으로 이어진 일련의 연재가 경제신문 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외적으로 표방된 상이한 창작동기와는 별개의 공약수가 이들 역사문학 전반을 가로지르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정보 혹은 지식, 그리고 그로부터 마땅히 얻어야 할 교훈을 견인하는 ‘재미’에 대한 고려가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설이란 읽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그의 원칙이 50대 이후부터 쓰기 시작한 역사물에도 계속 이어져 『李朝名妓列傳』, 『閔妃』 등의 인기작을 낳았고, 급기야 베스트셀러 『小説 孫子兵法』을 탄생시킨 셈이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정비석의 역사문학은 명목상 ‘당의정론’에 입각한 글쓰기라 말할 수 있다.

4. 텍스트 간 교섭과 담화적 분절

정비석의 역사문학은 역사적 소재라는 공약수를 매개로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하며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비석이 본격적으로 역사문학에 발을 들여 놓은 순간부터 이러한 단초가 발견된다. 『歷史小說 燕山君』(정음사, 1956)은 일종의 작품집으로 이에는 장편 『燕山君』과 함께 단편소설에 가까운 세 편의 글이 함께 수록되었다. 정비석은 이들 텍스트를 ‘李朝史譚’로 명명했다. 소설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했기에 붙인 양식명인지, 장형의 서사물이 아닌 관계로 역사소설이라 명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역사소설과 함께 엮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건대, 이를 역사소설의 맹아적 형태로 간주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운데 「김판서(金判書)와 단권관아(端川官娥)」의

25) 박성희, 鄭飛石의 作品世界, 『한국경제신문』, 1989.7.25.

내용이 후일 『名妓列傳』의 제13화 「端川妓 姮娥」로 소설화된다는 사실이다. 「변도령(邊道令)과 옥소선(玉簫仙)」의 경우도 『名妓列傳』의 제31화 「終章 殘花群像」 중 「平壤妓 玉簫仙」 편과 그 소재가 같다.

한편 사화집 『李朝女人史話』 경우 第1話 「盧禎判書의 愛妻」는 『名妓列傳』의 제13화 「端川妓 姮娥」와, 제6화 「仁祖反正과 洞庭月」은 『名妓列傳』의 제26화 「平壤妓 洞庭月」과, 제13화 「再嫁烈女」는 『名妓列傳』의 제8화 「谷山妓 梅花」와 모티프가 동일하다. 『李朝女人史話』의 발간 시점과 『名妓列傳』의 연재 시기가 겹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같은 모티프를 활용한 양 텍스트가 각기 「史話」와 「역사소설」로 양식을 달리하여 분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모티프의 서사적 변주는 『歷史小說 燕山君』에 수록된 「김관서(金判書)와 단천관아(端川官娥)」, 『名妓列傳』의 제13화 「端川妓 姮娥」, 그리고 『李朝女人史話』의 第1話 「盧禎判書의 愛妻」 간의 비교에서 그 상호텍스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 숙종(肅宗)때의 사람 김우항(金宇杭)은, 오십이 지나서는 병조판서(兵曹判書)의 벼슬까지 지냈지만, 그도 젊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못하지 않게 불우한 시절이 있었다. 김관서는 워낙 대갓집 자제로 태어났는지라, 어려서부터 사서삼경과 병서에 능통하여 학문이 도저하기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뒤질바가 없었으나, 그것도 역시 시운이 불리한 탓이었는지 과거(科擧)를 보면 번번히 낙방(落榜)을 하였다.²⁶⁾

(나) 조선왕조 제십구대 임금이었던 숙종(肅宗)초 서울 남산골에는 김우항(金宇杭)이라는 가난한 선비한사람이 살고 있었다. 김우항은 청송부마 김홍경(靑松駙馬 金洪慶)의 후손이어서 문벌은 당당하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학문에 정진하느라고 가사를 돌보지 않아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게다가 운수가 불길하여 학문의 실력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면 언제나 낙방이었다. 그리하여 나이 40이 가깝도록 포의한사(布衣寒士)로 군색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²⁷⁾

(다) 이조 선조(宣祖) 때에 노 진(盧禎)이라는 명신(名臣)이 있었다. 아호를 옥계(玉

26) 정비석, 김관서(金判書)와 단천관아(端川官娥), 『歷史小說 燕山君』, 정음사, 1956, 274쪽.

27) 정비석, 『名妓列傳』, 『조선일보』, 1975.12.7.

溪)라고 부르는 노진은 30세가 다 되어 장원급제하여, 나중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와 이조판서까지 지내면서 국가에 많은 치적을 남긴 공신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하게 된 그늘에는 가련한 한 여인의 숨은 공로가 있었으니,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²⁸⁾

발표 시기가 다른 위의 세 텍스트의 서두는 위에서 보듯이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사료에 근거하여 주인공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작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김판서(金判書)와 단천관아(端川官娥)」의 경우 인용문 (가)에서처럼 제목에 제시된 주인공 ‘김판서(金判書)’라는 인물에 관한 소개로 글을 열고 있다. 역사적 인물에 관해 구성된 이야기로서 ‘史譚’의 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名妓列傳』 「端川妓 姪娥」 편의 한 대목인 (나)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일인물에 관한 정보가 좀 더 소상히 서술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나)는 작품의 서두가 아니다. 인용문 (나) 앞에 주인공 ‘항아’라는 존재의 행적에 관한 사료, 그리고 그 같은 이름을 자신이 붙이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개에 앞서 일종의 메타적 서술이 행해진 셈이다. 액자구성에 해당하는 이 같은 도입부는 정비석의 역사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서사적 열개이다. 한편 앞의 두 텍스트와 모티프는 유사하나 인물 및 내용 면에서 현저한 변개가 행해진 「盧禎判書의 愛妻」의 경우 인용문 (다)에서 보듯이 이면사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 같은 지향은 옛날 여인들의 애정 기록을 통해 그네들의 내면생활의 일단을 소개하고자 한 집필 동기²⁹⁾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소설과는 다른 ‘史話’의 양식적 특질을 드러낸다.

사회와 소설 간의 담화적 차이는 역시 동일 모티프의 두 텍스트 『退溪逸話選』의 第三十話 「丹陽妓 杜香의 雅香」과 『名妓列傳』의 제21화 「丹陽妓 杜香」 간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제목만을 두고 본다면 응당 전자의 초점인물은 ‘퇴계’이고, 후자의 초점인물은 ‘두향’이 될 것이다. 전자가 대화체를 생략한 상태에서 회고적 문체로 ‘퇴계’의 행적을 역사가의 시선으

28) 정비석, 盧禎判書의 愛妻, 『李朝女人史話』, 正音社, 1976, 9쪽.

29) 위의 책, 4쪽.

로 소략히 기술하고 있다면, 후자는 사건 중심의 전개를 통해 ‘두향’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재현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상상적 재구에 가까운 텍스트이다. 이러한 허구적 측면을 보족하듯 정비석은 『名妓列傳』의 여느 편에서처럼 해당 인물의 실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련의 여정을 도입부로 삼는다. 이 같은 서사구조는 역사에 관한 메타적 글쓰기로서 역사소설이 흔히 단편적인 일화의 소개에 그치게 마련인 사화 혹은 사담과 분명 다른 담화의 글쓰기임을 과시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같은 소재를 매개로 한 텍스트 간의 교섭 양상은 소설 작품들 사이에서도 자주 눈에 띈다. 그 대표적인 예로 『金삿갓 風流紀行』에 나오는 ‘내기말’ 일화를 들 수 있다. 홀로 산중을 걷던 마나님과 처음 만난 그녀에게 몸을 요구하는 중놈 사이의 시비를 해학적으로 그린 이 일화는 이미 『名妓列傳』에 등장한 바 있다. 제12화 永興妓 笑春風 편 탁발승과 소춘풍 간의 말대꾸가 그것이다. 『金삿갓 風流紀行』에서 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재활용된다. 『金삿갓 風流紀行』에 소개된 기생 ‘이화’의 이야기 역시 『名妓列傳』에서 끌어온 일화이다. 평안감사로 부임해온 관리들이 이화라는 기생에 혹하여 정사를 보살피지 않자 임금이 호조참판 허민을 암행어사로 파견하게 된다. 허민이 자기를 죽이러 내려오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이화는 주모로 변장해 허민과 하룻밤을 보내며 자신의 팔뚝에 이름을 새겨 달라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이 일화는 『名妓列傳』 제2화 「長城妓 蘆花 편을 각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노화’에서 ‘이화’로, ‘노계명’에서 ‘허민’으로 바뀌었고 이야기가 압축되었다. 한편 『名妓列傳』 제28화 「洪原妓 洪娘 편 기생 홍랑과 고죽 최경창 사이의 애정비화는 분량만이 줄어 든 채로 『金삿갓 風流紀行』에 삽입된 경우다. 이외에도 『金삿갓 風流紀行』은 ‘황진이’와 같이 익히 알려진 여러 인물들의 일화를 『名妓列傳』에서 빌어와 변주시켜 재차 소개하고 있다.

5. 결론

과거에 대한 상상적 재구를 통해 시간에 저항하는 역설적 논거가 곧 역사문학의 미학이라 한다면, 정비석의 다기한 역사문학은 온전히 그에 부합했던 글쓰기라 할 수 있다. 공적 역사에 가려진 이면사를 다루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멜로드라마적인 역사 재생으로부터 파생되는 재미가 정비석 역사문학의 본령이거니와, 오히려 역사 지식 혹은 교훈은 독자 흥미를 자극하는 부수적 요인으로 기여한다. 이는 특히 조선의 과거를 대상으로 삼은 역사소설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과감한 묘사를 통해 전해지는 성과 풍류에 관한 무수한 일화들, 일세를 풍미한 영웅들의 후일담, 재기 넘치는 복수담 등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더없이 선정적인 일화들로서 서사의 마디마디를 매듭지어 가는 글쓰기 전략은 독자의 시선을 과거로 자연스럽게 비약시켜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이를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담화적 측면에서도 대중작가로서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문연재소설로서 역사소설의 글쓰기 전통을 자신만의 담화 기법으로 녹여내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신문연재소설은 태생적으로 일관되고 치밀한 서사적 구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한계 속에 놓여 있다. 매체의 특성상 하루분의 연재만으로도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역사소설이 신문연재소설로서 편집자와 독자 모두에게 환영받은 데에는 그와 같은 요건에 역사소설이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일화들의 여열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특정 텍스트에 쏟아졌다면, 그것은 신문연재소설로서 해당 역사소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는 평가로 거슬러 읽을 수도 있다. 사건보다는 주로 인물에 초점을 맞춘 정비석의 창작물들 역시 그와 같은 역사소설 미학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어서 해당인물의 행적에 얽힌 일화들은 물론이거니와 서사의 분류에서 벗어난 다수의 결가지 이야기들로 읽는 재미, 곧 대중성을 담보해 낸다.

정비석의 역사문학, 특히 역사소설 미학은 1920년대 후반 이래 번성한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 역사 지식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허구보다는 기록적 사실을 중시한 창작 태도도 그러하려니와 재미를 위해 동원된 여러 서사 전략들에서도 앞선 역사소설 문학과 의 계보학적 연관성을 목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신문 지면을 통해 독자와 대면함으로써 그 전파력을 극대화시킨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매체, 소재, 그리고 서사 전략이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정비석의 역사소설 문학은 대중성 획득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글쓰기였던 셈이다.

※ 정비석 역사문학 작품 연보

작품명		최초 연재지 (단행본 출판사)	연재 기간 (출간 시기)	비고
역사 소설	『暴君 燕山君』	아리랑	1955. 3 ~1956. ?	* 『歷史小說 燕山君』(正音社, 1956) * ‘暴君 燕山の 行狀記’로 개제 『韓國野談史譚全集』(東國文化社, 1960) 제13권에 수록 * 『韓國代表野談全集』(書正出版社, 1971) 제10권 수록 * 『小說 燕山君』(고려원, 1984)
	『名妓列傳』	조선 일보	1974. 4. 2 ~1979. 2. 28.	* 1977년 二友出版社에서 前期 7권 출간 * 1981년 信正社에서 전10권 출간 * 『鄭飛石名妓列傳 美人別曲』(고려원, 1989) * 『옛날 옛날에 한 女子-옷을 벗은 黃眞伊』(南郷文化社, 1982) * 『황진이-정비석의 역사인물소설1』(열매출판사, 2006)
	『閔妃』	범우사	1980	* 『小說 閔妃傳』(고려원, 1987) * 『소설 명성황후』(고려원, 1995) * 『소설 명성황후』(범우사, 2001)
	『金삿갓 風流紀行』	한국경제신문	1985. 11. 20 ~1989. 7. 23.	* 『鄭飛石風流小說 小說 김삿갓』(고려원, 1988~1989)
역사 담물	* 『名妓 一枝梅』 * 『黑頭宰相 洪彦弼』	글벗집	1955	『飛石文學讀本』에 수록
	『李朝奇人列傳』	野談	1955	
	* 『金判書와 端川官娥』	正音社	1956	『歷史小說 燕山君』에 수록

	* 「孝宗大王과 朴鐸」 * 「邊道令과 玉簫仙」			
	『韓國野談史譚 全集』 제13권	東國文 化社	1960	『韓國代表野談全集』(書正出版社, 1971) 제10권으로 재발간
	『李朝女人史話』	正音社	1976	
	「退溪逸話選」	退溪學 報	1976. 12 ~1979. 6	『退溪逸話選』(退溪學研究院, 1980)
	『退溪小傳』	退溪學 研究院	1978	
	『賢婦列傳』	正音社	1985	
중 국 역 사 물	『少年三國志』	學園	1963. 1 ~1967. 10.	* 『三國志』(學園獎學會, 1968) * 凱旋門出版社(1976), 일연각(1977), 大賢文化史(1978), 고려문화사(1978), 고려원(1985) 등에서 출간
	『小說 孫子兵法』	한국경 제신문	1981. 6. 2 ~1983. 2. 17.	* 『小說 孫子兵法』(고려원, 1984) * 『소설 손자방법』(은행나무, 2002)
	『楚漢誌』	한국경 제신문	1983. 2. 18 ~1985. 11. 19.	* 『小說 楚漢誌』(고려원, 1984~1985) * 『小說 초한지』(범우사, 2003)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 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 * 잡지: 『아리랑』, 『野談』, 『退溪學報』, 『學園』
- * 단행본
 - 『飛石文學讀本』, 글벗집, 1955.
 - 『歷史小說 燕山君』, 正音社, 1956.
 - 『韓國野談史譚全集』, 東國文化社, 1960.
 - 『三國志』, 學園獎學會, 1968.
 - 『韓國代表野談全集』, 書正出版社, 1971.
 - 『三國志』, 凱旋門出版社, 1976.
 - 『李朝女人史話』, 正音社, 1976.
 - 『名妓列傳』, 二友出版社, 1977.
 - 『三國志』, 일연각, 1977.
 - 『三國志』, 大賢文化史, 1978.
 - 『三國志』, 고려문화사, 1978.
 - 『退溪小傳』, 退溪學研究院, 1978.
 - 『閔妃』, 범우사, 1980.
 - 『退溪逸話選』, 退溪學研究院, 1980.
 - 『名妓列傳』, 信正社, 1981.
 - 『옛날 옛날에 한 女子-옷을 벗은 黃眞伊』, 南鄉文化社, 1982.
 - 『小說 孫子兵法』, 고려원, 1984.
 - 『小說 楚漢誌』, 고려원, 1984-1985.
 - 『三國志』, 고려원, 1985.
 - 『賢婦列傳』, 正音社, 1985.
 - 『小說 閔妃傳』, 고려원, 1987.
 - 『鄭飛石風流小說 小說 김삿갓』, 고려원, 1988-1989.
 - 『鄭飛石名妓列傳 美人別曲』, 고려원, 1989.
 - 『소설 명성황후』, 고려원, 1995.
 - 『소설 명성황후』, 범우사, 2001.
 - 『소설 손자병법』, 은행나무, 2002.
 - 『小說 초한지』, 범우사, 2003.
 - 『황진이정비석의 역사인물소설 1』, 열매출판사, 2006.

2. 논문과 단행본

박성희, 「鄭飛石의 作品世界」, 『한국경제신문』, 1989.7.25.

홍상훈, 梁建植의 『三國演義』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1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51-73쪽.

Abstract

Historical Literature as a Domain of Cheong, Bi-Seok's Popular Literature

Kim, Byoung-Gil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 study on historical literature as the proper function of Cheong, Bi-Seok's writing is total nonexistence. Therefore that is a reason why this study's purpose is to research his historical texts' bibliography and arrange different characteristics among them. It is urgent to divide those texts and distinguish them according to their properties. Standing the basis of such that works we can ask a question of a motive that made Cheong, Bi-Seok interest in historical writing.

Cheong, Bi-Seok's historical writing doesn't wander away from Korean historical literature's tradition which had contended between amusement and didactic. This study intended to verify the fact centering around his reminiscences and epilogues. Not only had he followed Korean historical literature's tradition, but also constructed his own novelistic form. To sum up such that individual style is one of the tasks of this study.

(Keywords : historical novel, popularity, amusement, didactic)

학술대회 발표일 : 2011년 10월 22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1년 10월 29일 정식 투고
심사일 : 2011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1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0일 게재확정